

『月影臺』시에 나타난 최치원에 대한 인식*

노성미**

|| 차례 ||

- I. 머리말
- II. 월영대 문화경관의 특성
- III. 시적 표상과 최치원에 대한 인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최치원의 유적지인 ‘월영대’ 문화경관을 소재로 한 시를 대상으로 하여 후대인의 최치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것이다. 월영대는 최치원이 지은 대로서 생활공간인 別墅, 기림공간인 孤雲影堂, 학문공간인 月影書院, 조망공간인 孤雲臺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월영대를 찾는 사람에게 월영대는 달그림자를 구경하는 현실공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최치원을 마주하는 상상의 공간이다. 월영대 문화경관은 최치원의 기억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최치원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월영대> 시에서 ‘달그림자’는 최치원의 소요와 고뇌를 환기하는 자기성찰의 표상이다. 월영대, 바다, 달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하늘의 달이 긴 그림자를 만들며 시적화자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달그림자는 최치원과 동일시되고 그림자가 시적화자에게 어떤 정신을 전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때 달그림자는 최치원과 시인이 이어주는 통로이며 최치원의 자기성찰을 시인이 경험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 다음으로 이백의 騎鯨고사를 차용하여 최치원을 詩仙으로 인식한 것이 있다. 최치원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문장가로서의 위상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

* 이 연구결과물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월영대의 황폐화된 모습을 통해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시적화자는 월영대의 푸른 이끼, 무너진 돌단, 우거진 잡초, 닳아진 글씨, 떠가는 구름 등으로 월영대의 쓸쓸한 현재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는 곧 최치원으로 감정이입 된다. <월영대> 시 속의 화자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시적 표상을 통해 최치원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어 : 최치원, 별서, 월영대, 고운영당, 월영서원, 달그림자, 고래

I. 머리말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은 사찰, 정자, 바위, 지명, 석각, 서원, 비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¹⁾ 월영대²⁾는 별서, 고운영당, 월영서원, 고운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월영대 문화경관은 고려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학자들의 유람처였으며, 시문 창작의 공간이기도 했다.

월영대는 최치원의 자연에 대한 공간인식과 자신의 존재가치와 처세에 대한 깊이 성찰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그는 벼슬에 대한 꿈을 버리고 소요

1) 이석해(2004)는 최치원 유적을 그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 강학, 유람, 수양 및 독선 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강학공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월영서원은 누락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고증을 통해 월영대를 구성하는 문화공간을 더욱 면밀하게 밝혔다.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442번지(해운동)에 위치하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1993.01.08)되어 있다. 최치원의 친필인 ‘月影臺’가 새겨진 입석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 ‘월영대’에는 “회원현 서쪽 바닷가에 있다. 최치원이 놀던 곳이다. 글을 새긴 돌이 있으나 벗겨지고 부서졌다.”고 하고 細字(작은 글자)는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다고 했다. 뒷면의 작은 글자는 획이 있었던 것을 알아볼 정도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다.

와 은거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했다. 월영대는 이러한 그의 행적이 남긴 유산이기에 후대인들은 월영대를 찾아 최치원의 고뇌와 삶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 결과는 <월영대> 시를 통해 확인된다.

본고는 월영대 문화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최치원의 소요에서 월영대가 차지하는 의미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별서를 둘러싼 문화경관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월영대 문화경관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월영대> 시의 대표적인 표상을 달그림자, 고래, 황폐화된 유적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시를 분석함으로써 최치원에 대한 인식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말까지의 한시로, 『한국고전종합 DB』와 『창원군지』³⁾, 각종 문집에 실린 76 편이다. 이 중 42 편을 제외하면 <고운대>, <합포>, <창원>, <단계>, <한벽루>, <두척산>, <次韻> 등의 제목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중심 소재가 월영대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월영대> 시’로 통칭한다.

II. 월영대 문화경관의 특성

월영대 문화경관의 특성은 최치원 별서의 역사성에 기대어 최치원의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권 46, <최치원>⁴⁾에 의하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는 황소의

3) 『창원군지』(1962)의 찬술 대상지역은 대산면, 동면, 북면, 내서면,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웅동면, 웅천면, 천가면,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 진북면 등이다. 題詠 137편 중에서 11편이 <월영대> 제목을 달고 있다. 그 외에도 합포, 창원, 두척산, 고운대 등의 시에서도 최치원을 노래하고 있다.

난 등 말세의 변란을 겪었고, 신라로 돌아와서도 신라 말의 어지러운 때를 만났다. 그는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곧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산림과 강해를 소요하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책 속에 묻혀서 풍월을 읊었다. 그 대표적 장소로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협주의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함포 별서를 들고 있다. 그의 소요처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 바다, 절, 산 등 자연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함포는 ‘別墅’라는 삶의 공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치원은 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885년(29세) 귀국하여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명>(887년), <초월산대승복사비명>(888년),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명>(892년),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893년)을 저술하고 태산군·부성군·천령군 태수를 지내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의 뜻을 펴지 못하고 898년(42세) 11월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해인사결계장기>(898년), <해인사선안주원벽기>(900년), <법장화상전>(904년) 등의 글을 썼다. 이 시기에 <법장화상전>과 같은 대 저작뿐만 아니라 많은 불교관계 저술을 했다.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908년)의 기록으로 보아 그는 908년(52세) 10월까지의 생존하였다(최영성 1999: 35-36).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최치원이 함포현의 별서에서 가족들과 머물러 살았던 시기는 898년부터 904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

4) “自西事大唐，東歸故國，皆遭亂世，屯遭蹇連，動輒得咎，自傷不遇，無復仕進意，逍遙自放，山林之下·江海之濱，營臺榭植松竹，枕藉書史，嘯詠風月。若<慶州>·<南山>·<剛州>·<氷山>·<陝州>·<清涼寺>·<智異山>·<雙溪寺>·<合浦縣>別墅，此皆遊焉之所。最後，帶家隱<伽耶山>·<海印寺>，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結爲道友，棲遲偃仰，以終老焉。”

다. 왜냐하면 그가 해인사의 화엄원에서 <법장화상전>을 저술할 시기에 이미 신병을 치료하며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요를 계속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완전히 이주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별서에 머물렀던 시기는 현실참여와 은둔 사이에서 고뇌하던 때였다. 따라서 월영대를 찾았던 후세사람들은 월영대에서 소요하던 최치원의 고뇌를 확인하고, 그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것은 시문 창작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합포별서’는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의 ‘龍隱別墅’ 친필석각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별장 기록으로서의 최초의 기록이다. 별서는 삶의 공간이다. 『두곡세지』(경주최씨 두곡문중 2007: 21)에 의하면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두곡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경주최씨 두곡문중은 최치원을 中始祖로 한다. 그들은 최치원 영당과 월영서원 유허비를 유지하고 있는 최치원의 후손이다. ‘합포 별서’는 최치원의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후대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것은 창원이 합천을 제외하고 최치원 관련 시문이 가장 많이 창작된 곳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월영대는 달그림자를 구경하는 대, 즉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최치원은 바닷가를 소요하며 사색하고 학문을 했다. 그러한 최치원의 삶의 공간에 후대인들이 의미를 부여하여 영당을 설치하고 서원을 세웠다. 최치원의 소요처는 서원이라는 학문탐구의 현실공간으로 변모되었다.

5) 于食天復四春, 枝幹俱首. 於屍羅國迦耶山海印寺華嚴院避寇養病.……(『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華嚴宗第三祖賢首之傳』‘後序’)



그림 1. 1920년 월영대

<문창후 최선생 월영대 추모비문>(1932)에는 당시 월영대의 모습을 “선생이 손수 심었던 두 그루의 감나무가 몸통이 울퉁불퉁하고 뿌리가 뒤엎힌 모습(擁腫盤錯)으로 대여섯 아름드리쯤의 크기로 서 있으며 맑고 시원한 샘물이 여태 변하지 않았다.”⁶⁾고 했다. 또 “崇禎後五年壬辰”(1632년)에는 월영대를 정화하고 “천세만세 유린되지 말라”는 <遺墟碑>를 세웠다. 그림 1은 월영대 비석, 유허비, 감나무가 있던 1920년대 월영대 모습이다. 월영대 비석은 지금도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다.

최치원은 별서에 머무르면서 월영대를 조성했고, 그것은 후세에 고운영당과 월영서원을 세운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典故大方』과 『書院謄錄』에 근거하여 월영서원이 1713년(숙종 39)에 창건되었다고 했다. 월영대 유허비가 세워진 이후에 서원이 세워졌다.

아래 <월영서원상량문>은 1846년(헌종 12) 응천 박치복이 쓴 것이다.

숲이 우거진 곳의 사당에 소상이 섞여 있어도 또한 도울 상이 없다. 이끼가 뒤덮고 낙숫물이 얼룩을 새기니 우리 선비들이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독한

6) 『동국여지승람』, 『고운선생 사적』에서도 “고운대에 늙은 감나무가 있는데, 선생이 손수 심은 것이라는 전설이 전한다.”고 하였다.

안개가 월영대를 감도는 곳이 매번 나그네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다. 여름 더위가 찾아올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서원을 지을 것을 의논하여 향교에 돌리니 호응하는 소문이 일어 어찌 감흥을 일으킴이 없겠는가. 사람에서 재물을 모으고 계획하니 다만 구름의 주장함뿐만이 아니었다.

-<월영서원 상량문>⁷⁾의 일부

박치복은 스스로를 최치원의 後學으로 칭하며, 서원의 사당이 오래되어 이끼가 뒤덮고 낙숫물이 얼룩을 새길 정도로 퇴락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서원을 지을 것을 의논’ 하여 사람에서 재물을 모아 월영서원을 짓고자 했다. 그러나 1869년(고종 6)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졌고 월영서원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⁸⁾



①문창서원 터 표지석과 돌무지



②서원지 수습 기와조각

그림 2. 월영서원 유물

7) 『두곡세지』 pp.116-119 참고.

8) 『전고대방』, 『서원등록』, 『월영서원 건립 성금모금 통문』, 『월영서원 강당 상량문』, 『고운 사당 昇享文』, 『월영서원 봉안축문』, 『월영서원 향사 축문』, 『영남누대지』, 『두곡세지』 등 참고.

그리하여 서원은 폐지되고 ‘文昌侯崔先生影堂’ 현판은 최치원 후손들의 세거지인 두곡마을로 옮겨졌고 월영서원 대신 ‘두곡영당’이라 이름 붙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림 29)의 ①은 월영서원이 철거된 자리에 있던 돌무지와 <文昌公院墟> 표지석이다. 1984년 까지 마산시 월영동 471번지 경남대학교 경내에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경남대학교 캠퍼스조성사업을 위해 부지를 정리하면서 표지석과 돌무지가 철거되고 서원 표지석은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7월 8일 최치원 후손들의 요청에 의해 현재의 두곡서원 뜰로 옮겨 세웠다. 그림 2)의 ②는 당시 월영서원 터에서 수습된 기와조각의 일부인데 ‘本孫建院’의 글자가 비교적 또렷하다.

孤雲臺¹⁰⁾는 최치원이 수양하던 곳으로 전해지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김종직(1431-1492), 장유(1587-1638), 이민구(1589-1670), 홍석기(1606-1680), 김시겸(1764-1827), 장지연(1864-1921) 등 많은 문인학자들이 고운대에 올라 최치원의 삶을 회고하고 시를 지었다. 그들에게 고운대는 합포만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곳인 동시에 최치원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상과 같이 월영대 문화경관은 최치원이 벼슬에서 물러나 소요하며 고뇌하던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최치원의 치열한 고민과 깊은 사색이 담겨있다. 따라서 후대인들에게 이곳은 경치를 조망하는 자연 공간인 동시

9) 이 사진은 서원 표지석이 경남대학교 경내에 있을 당시 경주최씨 두곡문중의 최양호씨가 1984년 촬영한 것이다.

10) 이만부(1664-1732)의 『月影臺記』에는 “광려산의 남쪽에 두척산이 있는데 봉우기가 높디높으며 위에는 치원대가 있다. 두척산의 남쪽 5리쯤 회원현 성채 곁에 월영대가 있다. 동쪽으로 대해에 닿아있고 웅산을 바라본다.”(『석산집』, 『별집』 권 3)고 하였다. 미수 허목의 記文에도 최치원이 월영대에 노닐었고 그 옆 해상에 고운대가 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치원대’와 ‘고운대’ 명칭을 함께 쓴 것으로 보인다.

에 최치원을 마주하는 이념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Ⅲ. 시적 표상과 최치원에 대한 인식

월영대는 최치원과 등가적이다. 그러므로 월영대에 오른 사람은 현실공간을 넘어 상상공간으로 자신을 전이시켜 최치원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달그림자에 내재된 최치원의 자기성찰을 읽어내고, 詩仙 최치원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황폐한 월영대의 모습에서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월영대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를 기준으로 최치원에 대한 인식을 해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최치원과 관련된 월영대라는 특정한 장소가 시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최치원의 삶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달그림자: 자기 성찰

<월영대>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는 달 또는 달그림자이다. 달그림자는 월영대를 찾은 시인의 눈에 목격된 자연 대상으로서의 달그림자이기도 하고, ‘월영대’의 ‘月影(달그림자)’이기도 하다. 허목(1595-1682)은 “합포 월영대의 9007억 3만 8000척의 절경이 있다.”¹¹⁾고 했다. 또 <월영대기>에서 “매월 보름 다음 날 초저녁에 바다의 조수가 가득 차오르면 월영대에 올라 달그림자를 구경한다.”¹²⁾ 하였다.

11) 『기언』 권 35, 외편, 동사 4, 지승

또 이만부는 합포의 월영대를 소개하면서 허목의 달그림자 비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月影億萬尺 直通玄陰光”¹³⁾라고 했다. 달그림자 억만 척이 곧장 현음의 빛을 통하였다고 하여 월영대의 의미를 ‘달그림자’로써 표현했다. 달빛이 현음의 빛을 직통했다고 한 것은 ‘上玄’으로서의 ‘하늘’과 ‘下陰’으로서의 ‘땅’을 관통한 달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월영대까지 통한다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현묘한 이치에 통달했다’는 의미로서의 ‘玄通’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달그림자를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황(1501-1570)의 <월영대>는 월영대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시인의 내면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그에게 달그림자는 자신의 마음과 최치원의 마음을 하나로 관통시킨다.

老樹奇巖碧海隈	늙은 나무 기이한 바위 푸른 바닷가
孤雲遊跡總成烟	고운이 놀던 자취는 연기처럼 사라졌네.
只今唯有高臺月	이제는 오직 높은 대에 달만 남아있어
留得精神向我傳	그 정신 담아다가 내게 전해주네.

-『퇴계선생문집』 권1

『춘당집』¹⁴⁾에 의하면, 이황의 <월영대>는 1533년(중종 28) 경에 창작되었다. 그 해 봄에 이황은 춘당의 조부, 부친과 회산(창원의 옛 이름)의

12) 『기언』 권 28, 산천, <월영대기>

13) 이만부, 『식산집』 속집 권 1, <남풍시> 제7.

14) 『春塘集』은 오수영(1521-1606)의 문집으로 1898년 간행된 4권 2책의 활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춘당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에서 1997년 국역으로 간행)의 『한국문집총간』 속 3에 실린 행장·묘갈명·가장·본집 등에 근거하여 춘당은 퇴계 이황이 월영대를 방문할 당시 동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영대를 유람했는데 이때 13세의 나이였던 춘당이 따라가게 되었다. 춘당은 松齋 李堉의 외손으로 외조부에게 학문을 배우다가 이우의 조카인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그는 월영대 유람 동행 3년 뒤에 이황의 문하생이 되었다.

춘당 오수영은 『퇴계집』 찬집에 참여했고 1571년 3월 이황의 장례 시에 이황의 문장과 도덕을 찬양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한 <祭退溪先生文>을 지었다. 1601년(선조 34)에는 <退溪先生履歷草記>를 지었다. 퇴계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1533년에 이황과 조부, 부친이 월영대에서 유람하며 지은 월영대 시를 발견하고 감회를 느껴 화운해서 <追和退溪先生與王父遊月影臺韻後識>¹⁵⁾를 지었다. 여기에서 이황 일행이 월영대에서 종일토록 시를 읊으며 놀았고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다가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월영대>에서 먼저 최치원이 머물렀던 흔적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자연의 경물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월영대는 흔적이 퇴색되고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없는데 대한 무상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곧 월영대를 비추는 달빛과 하늘에서 월영대까지 이어지는 달그림자의 모습을 아득하게 바라보면서 시인은 내면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이황은 최치원이 ‘현묘한 이치를 관통’했던 심오한 경지를 스스로 확인하며 감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달그림자를 통해 최치원이 남긴 정신을 더듬으며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16세기 도학가들의 세계관과 미학에 닿아 있다. 16세기

15) “嘉靖癸巳之春 退溪先生薄遊南州 王父及先君相與同遊於檜山月影臺 觴詠終日 極歡而返 時王父年七十九 而小子十三歲矣 雖在總角之時 及見先生之詩 敬而讀之 至今未忘焉 嗚呼 星霜屢變 今已五十三年 抱此終天之痛 而不見王父之詩 常以爲恨 今夏諸生纂集先生遺稿於易東書院 子齋得見此詩於遺稿中 書而示之 盈跪而讀之 不勝悲愴之情 追和其韻”(『春塘先生文集』卷 3)

도학가들은 산수자연을 정신수양의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산수자연의 이 법 속에서 생생 운행하는 진리가 나에게로 개시되어 오는 것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심경호 2002: 75) 믿었다. 월영대에서 달그림자를 바라보는 이황의 태도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 내면세계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학자적 자세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확인은 스스로의 내면적 상황을 통해 최치원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에게 달그림자는 최치원의 정신이며 그에게 전하는 최치원의 언어인 것이다.

이원(1368-1430)의 <次雙梅堂月影臺詩>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書生過此尙含羞	서생이 여기 오면 여전히 부끄러운데
壯士腐心知幾秋	장사가 애태운 것 몇 년인지 알겠네.
直欲張帆仍制梃	곧바로 돛 펼치고 곤장 만들어 내어
奉天問罪海東頭	하늘 받들어 죄를 묻고 동해로 머리 조아리네.

-『용현선생문집』 권2

쌍매당 이첨(1345-1405)은 1394년(태조 3) 3월에 왕씨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마산 합포로 귀양 왔다.¹⁶⁾ 그러나 그해 10월이 왕의 탄신일이므로 사면되어 해배되고 직첩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 합포에 머물다가 2년 뒤인 1396년에 왕의 부름을 받고서야 서울로 돌아갔다.

이첨은 <斗尺山> 시에서 옛적 최치원이 이룬 월영대를 찾아와 소요하며 고운을 찾고 위로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러 믿고 따라와 지금에

16) <태조실록> 1년(1392년) 7월 28일 ‘태조의 즉위 교서’에 의하면 이첨은 조선 건국 초 정권교체기에 반란죄를 입어 유배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르렀지만/ 눈은 끝없이 날아가는 새만 좇네.”¹⁷⁾라고 하였다. 쌍매당의 정신적 지향은 최치원의 학문을 좇는 것이었으며 그를 흠모하며 월영대에서 최치원에 견주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완성을 위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단순한 유람의 공간이 아니다. 산수 유람은 학문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현재적 삶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대상물이다. 이 평가는 자신의 인생방향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해보는 것이며 미래의 지향성에 대한 방향제시(손오규 2006: 235)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월영대에서 달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은 달그림자에 내재된 최치원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월영대의 달그림자는 최치원의 뜻과 시인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최치원의 자기성찰을 시인이 경험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

2. 고래: 詩仙에 대한 동경

<월영대> 시에 나타난 최치원의 인물 표상은 學士, 儒仙, 賢才, 壯士, 鶴, 英雄, 神仙, 高才, 黃鶴, 華鶴, 天翁, 仙翁, 生鶴, 詩仙, 仙骨, 仙人, 才傑 등(한정호 2014: 29-34)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로만 볼 때 최치원은 신선의 경지에 든 초월적 인물로 인식된다.¹⁸⁾ 이식(1584-1647)은 “아득한 그 옛날 신선은 가셨지만/ 명성은 온 천하에 드리워있네/ 평소 남기신 글 사모하여/ 자취 어루만지며 서성이노라”¹⁹⁾라고 했다. 이 같은 태

17) “俯仰成古今 極目送飛鳥”(이침, 『雙梅堂篋藏集』 卷 1)

18) 최치원은 <石上矮松>에서 스스로를 바위 위의 작은 소나무에 비유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이 재목이 되어 골짜기와 바다에 소외되어 있지만, “棟樑堪入晏嬰家”라고 하여 나중엔 결국 자신이 동량이 되어 신선세계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염원은 사후에 결국 설화를 통해 신선계에 편입됨으로써 그의 꿈이 이루어진 셈이다.

19) “月影臺峽拆輪溟漲 千峯鏡裏來 孤雲無處所 明月只亭臺 劫盡神仙死 名垂宇宙開

도는 월영대를 찾은 시인들의 마음의 근거에 높은 문장가로서 신선의 경지에 든 최치원이 자리하고 있다. 채홍철(1262-1340)은 “文章習氣轉崔嵬/忽憶崔侯一上臺”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문장의 기세가 점점 높아지는 때에 문득 최치원을 생각하며 대에 오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월영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문장가 최치원에 대한 흥미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래’는 문장가 최치원을 극대화한 표상이다. 일반적으로 고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위엄이 대단한 대상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고래는 바다에 사는 큰 동물로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못된 고래를 채 못 죽여 동해에 시름이 깊은지라”²⁰⁾라고 하여 바다를 침범하는 왜적을 비유하기도 한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집』에서 그가 당나라에서 교유한 시인 顧雲의 글에 대해 평가하면서 “學派는 고래가 바다 물결을 내뿜는 듯하였고, 詞鋒은 劍光이 은하에 비낀 듯 하였습니다. 빠짐없이 갖추어 찬송하였으니, 세상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²¹⁾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래는 학문의 물결이 힘차게 뿜는 정도가 고래가 바다의 물결을 내뿜는 기세에 비유된다는 뜻이다.

서거정(1420-1488)은 <월영대>에서 ‘고래’ 표상을 통해 당나라 시인 이백과 최치원을 동격으로 그려내고 있다.

平生慕遺響 撫跡一徘徊”(이식, 『澤堂集』 卷 2)

20) 최립(1539-1612)의 『簡易集』 제7권, <甲午行錄>, ‘台座의 시에 차운하다’에 보면, “鯨鯢緩戮愁東海 虎豹寬訶愬北辰 須試平生誦三百 激昂猶得見精神”이라 하여 왜적을 고래에 비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식(1584-1647)의 『澤堂集 續集』 제3권, ‘送回答副使姜任甫 弘重 赴日本’의 “莫愁鯨作橫”과 ‘寄呈東萊柳使君’의 “掛劍長鯨避” 등도 왜군을 고래에 비유한 예들이다.

21) 최치원, 『계원필경집』 제17권, 계·장, ‘獻詩啓’

孤雲騎鯨飛上天 고운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
白雲渺渺尋無處 흰 구름만 아득하여 찾을 곳이 없구나.

(중략)

江南山水牢籠畢 강남의 산수를 다 제 것으로 만드니
江南風月無閑日 강남의 풍월이 한가한 날 없었네.

-『속동문선』 제4권

서거정의 행력²²⁾에 의하면 그가 월영대를 방문한 시기는 1478년(성종 9) 경이다. 그는 한성부판윤이 되어 9월 중궁태실증고사로 경상도 예천을 방문했고, 이어 군용순찰사가 되어 경상도 지역을 순방했다. 이때 월영대를 찾아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또 신지제(1562-1624)의 시²³⁾에서도 최치원을 ‘고래를 타고 하늘로 간’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신지제는 1603년(선조 36) 8월에 경상도 군무안핵사가 되었고 다시 1613년(광해군 5) 그의 나이 52세 때 창원부사가 되어 5년간 창원부에 머물렀다.²⁴⁾

采石騎鯨九萬里 채석에서 고래 타고 구만리
遼城化鶴三千秋 요성에서 학이 된 지 아득한 옛날.
僊臺明月一惆悵 신선의 대에 밝은 달 비치니 탄식이 일고
山海空餘物色留 산과 바다는 비어 너덕하고 물색이 남아있네.

-『오봉선생문집』3권, <회산잡영> 중

22) 『세조실록』, 『성종실록』 등 참고.

23) 신지제의 문집 2,3,4권은 『檜山雜詠』인데 253제의 시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엮었다. ‘회산’은 창원의 별칭으로 신지제가 창원부사로 재임했던 시절 지은 시를 ‘회산잡영’이라는 제목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 중에서 월영대를 소재로 지은 시가 차운시를 합하여 14편에 이른다. 이는 신지제가 그만큼 월영대와 최치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음을 말하며, 차운시를 통해서도 창원의 월영대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24) 신지제, 『오봉집』 序, 後識, 跋, 『오봉선생별집』 跋 등을 참고함.

신지제는 최치원이 죽어 이미 이곳에 없는 것을 고래를 타고 구만리 하늘로 간 것으로 표현했다. 채석에서 고래타고 갔다는 것은 최치원과 이태백을 등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석’은 채석강을 뜻한다. 중국 안휘성 마안산 서남쪽에 있는 양자강 동쪽 끝에 있는 采石磯는 이백의 유적지다. 이백이 술에 취해 노닐다가 채석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馬存의 <燕思亭>에서는 “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²⁵⁾이라 하였다. 이백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죽지 않고 고래를 타고 하늘로 갔다고 한 것은 이백을 신선이 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최치원의 죽음을 이백의 죽음과 동격으로 표현했다.

또 요성에서 학을 타고 떠나갔다는 표현은 요동 사람인 정영위가 仙術을 배워 학이 되어 승천했다는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全唐詩』에 歸鶴, 遼鶴, 華表鶴, 千年鶴, 千歲鶴, 千歲鶴歸, 千年化鶴 등의 전고를 내세워 후세에 고향을 잊지 못하는 사람 혹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로 활용한다. 신지제의 <손경정이 월영대에서 정교은의 운자를 써서 지은 것에 차운하다>²⁶⁾에도 최치원을 요동성 학에 비유하고 있다.

<월영대> 시에서 최치원은 학이 된 신선이며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詩仙이다. 이와 같이 최치원을 이백과 동격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선 최치원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그를 동경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3. 고적의 황폐: 고독과 소외

월영대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산수 유람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나

25) 마존 저, 성백효 역(2001), <연사정>(『고문진보전집』, 전통문화연구회), pp.210-211.

26) “荒涼雄堞傍崖崑 老樹殘碑學士臺 天柱中秋蟾寂寞 遼城落日鶴歸來”(신지제, 『오봉선생문집』 권 2, ‘次孫景徵月影臺用鄭郊隱韻’)

유유자적과는 다른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최치원 유적을 찾아 와서 유유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황폐화되고 쓸쓸히 버려져 있는 월영대를 목격하게 된다. 이는 시인으로 하여금 쓸쓸한 감회를 일으키고 그 쓸쓸함은 최치원의 고독과 소외의 감정으로 감정이입 된다.

獨留古石臺 외로이 홀로 남은 옛 석대에
冉冉秋雲下 사뻐사뻐 가을 구름 내려오네.

-『계곡선생집』33권

이 시는 장유의 <次韻蒼然亭八詠> 중의 한 편인 <孤雲臺>다. 전반부에서 시인은 옛적 최치원이 가야산으로 들어가 스님들과 결사를 하고 지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최치원이 노닐던 고운대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고운이 이미 떠나고 석대만 외로이 홀로 남아 있는 곳에서 하늘의 구름이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와 고운대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경험한다. 그 경험은 석대에 내리는 구름을 고운 최치원의 ‘외로운 구름’으로 감정이입하게 되고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을 환기시킨다.

월영대에서 마주한 최치원의 고독과 소외는 부서진 비석, 무너진 층대, 이끼 낀 돌, 무성한 잡초 등으로 표상된다. 이석형(1415-1477), 서거정(1420-1488), 조위(1454-1503), 정유길(1515-1588), 조임도(1585-1664)²⁷⁾, 정기안(1695-1767)²⁸⁾ 등의 시에도 고적의 황폐함을 통해 쓸쓸하고 소외된 최

27) 조임도, 『潤松先生續集』 권1 ‘甲寅踏青 同梧峯丈遊月影臺’는 오봉 신지제와 함께 답청일에 월영대에 놀며 지은 시다. 신지제는 1613년에서 1618년까지 창원부사로 있었는데, 그 시기 지은 시로 보인다. 그리고 신지제의 ‘월영대’ 시를 차운한 시가 있고 ‘昌原府 屋主入梧峯丈’과 ‘檜山月夜’, ‘昌原東軒 次雙梅堂韻’ 등 창원을 배경으로 한 다수의 시가 있다. 월영대를 찾아왔으나 부서지고 낡은 비석과 무성하게 낀 이끼 뿐 최치원의 자취가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한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치원의 소묘를 환기시킨다. 그들은 최치원이 월영대에서 느꼈을 소외와 고독의 정서를 현재 남겨진 유적의 쓸쓸함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최치원의 고독과 소외에 대한 공감은 이후 불우한 지식인들이 그를 정신적 귀의처²⁹⁾로 삼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滄海有潮環古壘	넓은 바다에 조수가 있어 옛 진터를 감돌고
短碑無字半荒苔	짧은 비석엔 글자는 없어지고 이끼가 절반이었네.
風流太守仍文雅	풍류 고상한 태수는 문인에 능하거니와
爲我閑登酌一杯	나를 위해 한가롭게 올라 술 한잔 권하게.

-『사가시집보유』 제1권

위의 시는 서거정(1420-1488)의 <送昌原府使>의 일부이다. 이 시는 창원부사로 가는朴公을 전송하며 지은 시인데, 전반부에서는 그가 예전에 월영대에 여러 번 올랐던 일을 회고하고 있다. 그가 회고한 월영대의 모습은 아무도 없이 석양만 지고, 대석은 이끼 끼고 글자는 닳아 없어진 모습이다.

황폐화된 월영대는 쓸쓸하게 소외되어 있는 최치원과 동일시되고 있다.

28) “似見孤雲子 文昌尙有臺 滄波天地在 明月古今來 石沒題詩字 壇生坐處苔 朗吟山日晚 停蓋久徘徊”(정기안, 『晚慕遺稿』 권 1); 돌비석이 닳아 월영대 글자만 남아 있고 단에는 이끼가 자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가 저물도록 단가를 배회하는 시인의 마음은 고운의 외로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주에 이르기를 옛날 고운이 쓴 제시석은 남아있으나 지금은 땅에 거의 반이나 함몰되어 있고 글자는 닳아 알아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9) 성여신 같은 사람은 극대화된 불화를 달랠 길이 없어 불일함에 올라 “고운을 부름이여, 참된 비결을 묻노라.”라고 읊었고, 김지백은 지리산 화계동을 최치원이 노닐고 청학이 사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겼다(최석기, 2000, 392). 성여신은 자신의 불우를 최치원의 처지와 같은 차원으로 인식하고 지리산을 찾아 들어가 최치원을 부르며 처세의 해답을 찾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인은 박공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월영대의 주인인 최치원에게 술 한잔 권하며 위로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登仙歲久尋來晚 선계에 오른 지 오랜 세월 늦게야 찾아오니
 斷碣苔荒記者誰 깨진 비석에 이끼 덮여 기억할 사람 누구일까.
 安得銀蟾出霄漢 어찌해야 달빛 타고 은하수로 나아가서
 暫邀芝蓋話心期 잠시라도 그대 맞이하여 마음 속 이야기할까.

-『임당유고』 상

위의 시는 임당 정유길(1515-1588)의 시다. 전반부에는 말을 달려 월영대에 도착했을 때의 주변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어서 깨진 월영대 비석과 이끼가 덮여 황폐해진 월영대에 시선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멀어진 최치원이지만 그는 최치원을 만나 ‘마음 속 기억’을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시인은 최치원을 만날 수 없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의 황폐함을 통해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을 환기하고 있다.

최치원은 정치에서 물러나 소요하며 사색했고 그의 별서와 월영대는 바로 이 고독한 시간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곳은 그가 자신의 정치적 불우를 인정하고 사색하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하던 공간이다. 그는 소외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사색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들어갔고 이후 저술에 몰두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

손오규(1994: 229-230)에 의하면 최치원의 소요는 어떤 집단이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 가치의 추구이며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모색이며 인생에 대한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그가 가야산에 은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정치적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초탈한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월영대는 최치원이 정치적 소외와 고독 속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뇌했던 공간이다. 따라서 월영대를 찾은 시인은 월영대의 황폐화된 현재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최치원의 소외를 환기시키고 월영대라는 대상과 시적 화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 속에 주체가 정서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최치원의 고독을 더욱 실감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이끼 낀 돌, 어저러이 우거진 풀, 무너진 석대, 닳아버린 글씨, 쓸쓸한 석양, 떠나가는 구름 등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들은 고독과 소외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소재들이며 시적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쓸쓸함과 통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 월영대의 황폐함을 넘어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 속으로 감정이입 된다. 이러한 특징은 박희병(1993: 217-219)이 말한 ‘물아일체’ 혹은 ‘무아지경’으로부터 연유하는 산수시의 특징에 닿아 있다.

시인은 월영대의 황폐해진 모습 위에서 있지만 이미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최치원이 소요했던 시대로 소급되어 자신의 현재를 넘어 최치원을 마주하는 것이다. 즉 시적 화자가 월영대에서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을 환기하는 순간 그에게 월영대는 이미 현실공간을 넘어 상상의 공간으로 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월영대의 황폐한 모습은 최치원의 고독과 소외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月影臺’는 고운 최치원이 지은 대로서 생활공간인 별서, 기림공간인 고운영당, 학문공간인 월영서원, 조망공간인 고운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월영대를 찾는 사람에게 이곳은 달그림자를 구경하는 현실공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최치원을 마주하는 상상의 공간이다. 월영대 문화경관은 최치원에 대한 기억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최치원과 등가적으로 인식되었다.

<월영대> 시에는 시적 화자의 최치원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황, 이첨, 이원 등의 시는 월영대의 ‘달그림자’를 중심 소재로 선택했다. 월영대, 바다, 달을 하나의 풍경으로 그리고 있고 화자는 달그림자를 최치원과 동일시하고 있다. 달그림자가 자기에게 어떤 정신을 전해준다고 한 것은 달그림자에서 최치원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월영대의 달그림자는 최치원의 뜻과 시인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최치원의 자기성찰을 시인에게 전하는 매개가 된다. 다음으로 서거정, 신지제 등의 시는 이백의 기경고사를 차용하고 있다. 최치원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문장가로서의 최치원의 위상을 극대화한 것이며, 학이 된 신선이나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 것은 최치원을 詩仙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이석형, 조위, 손기양 등의 시는 월영대의 황폐화된 모습을 그림으로써 최치원의 소외와 고독을 환기하고 있다. 화자는 월영대의 푸른 이끼, 무너진 돌단, 우거진 잡초, 닳아진 글씨, 떠가는 구름 등으로 월영대의 쓸쓸한 현재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는 곧 최치원으로 감정이입 된다. 최치원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은 화자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최치원이 소요했던 시대로 소급되어 최치원을 마주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경주최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국역 고운최치원선생문집』, 대보사, 1997.
- 고운국제교류사업회, 『고운 최치원의 종합적 조명』, 문사철, 2009.
-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9.
- 김종하, 『창원군지』, 국제신보출판사, 1962.
- 노성미, 「<최고운전>의 탄생모티프 연구」, 『배달말』49집, 2011, pp.353-374.
- 두곡세지 편집위원회, 『두곡세지』, 경주최씨 두곡문중, 2007.
- 마 존 저, 성백효 역, 『고문진보전집』, 전통문화연구회, 2001.
- 박희병, 「한국산수기연구: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8집, 1993, pp.210-232.
-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최치원의 산수은둔」, 『어문교육논집』13·14집, 1994, pp.109-128.
- 심경호, 「16세기 도학가의 세계관과 미학」, 『국문학연구』7호, 2002, pp.29-86.
- 양승이, 「금강산 관련 문학작품에 나타난 유가적 사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이구의, 『최고운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5.
-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 이식(李植)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6집, 2012, pp.213-246.
- 이동환, 「퇴계 시세계의 한 국면」, 『퇴계학보』25집, 1980, pp.73-78.
- 이석해, 「최치원관련 유적의 문화경관 특성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최석기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 _____,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연구』26집, 2000, pp.237-270.
- 최영성 역주, 『역주 최치원전집 1: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1998.
- _____, 『역주 최치원전집 2: 고운문집』, 아세아문화사, 1999.
- _____,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 문사철, 2012.
-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2013.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정호 외 엮음, 『최치원이 그리운 시인의 노래』, 마산문화원, 2014.

_____, 『최치원 흠모 한시 연구(1)-창원지역을 중심으로』, 『고운 최치원 학술심포지엄자료』, 마산문화원·(사)고운최치원기념사업회, 2014.

Abstract

Perception for Choe Chiwon Represented
at <Wolyeongdae> Poems

Rho, Seong-Mi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perception of future generation for Choe Chiwon by surveying the poems about cultural landscape of his monument called Wolyeongdae. Wolyeongdae, a belvedere built by Choe Chiwon, forms the cultural landscape composed of country house as living space, Goun portrait house as memorial space, Wolyeong lecture hall as study space and Goundae as viewing space. To visitors, Wolyeongdae is not only a real space for watching the moon shadow but also an imaginary space for meeting Choe Chiwon transcending the physical time. The cultural landscape of Wolyeongdae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expanded reproduction for the memory of Choe Chiwon and is equivalent to Choe Chiwon himself. The moon shadow in <Wolyeongdae> poems are a symbol of self-reflection recalling his ramble and distress. The moon shadow at this time is not only a passage connecting Choe Chiwon and poems but also a subject matter for poems to experience self-reflection of Choe Chiwon. Next there exists that Choe Chiwon was regarded as a poem hermit borrowing the whale-riding idiom of Lee Baek. The expression that Choe Chiwon went up to heaven on a whale maximized his status as a stylist. His alienated and lonely life was also expressed through the ravaged look of Wolyeongdae. The narrator in <Wolyeongdae> poems shaped the perception for Choe Chiwon through a variety of poetic representation as described above.

Key Word : Choe Chiwon, Byeolsoe(country house), Wolyeongdae, moon shadow, whale

노성미

소속: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sm108304@kyungnam.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

